

# 열정과 사랑으로 지역발전에 힘쓰는 시의원



“**실천**”과  
“**봉사**”로

주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후보

시의원<sup>후보</sup> 무소속

# 5 윤선희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주시의회의원선거 전주시아선거구

## 1. 인적사항

기호	소속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5	무소속	윤선호	남	1961.05.01. (65세)	무	전주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전) 국제와이즈맨 전주지역 백제클럽 초대회장 (현) 전주시자원봉사자

## 2. 재산상황 및 병역 사항

재산사항(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091	702	5,389	해당없음	차녀 : 고지거부 삼녀 : 없음	육군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해당없음

## 3. 최근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해당없음
		체납액 누계	현재납액	
계	3,398	0	0	
후보자	8	0	0	
배우자	962	0	0	
직계존속	-	-	-	
직계비속	2,428	0	0	

## 4. 소명서

# 윤선호의 내일을 바꾸는 4대 약속

## 1 구도심 환경 개선

[진북동·금암동·덕진동]

- 1) 20가구 이하 노후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개선 지원
- 2) 골목길 CCTV, 보안 등 설치로 인한 안전 주거환경 개선

[만남의날 행사 개최]

-진북동·금암동·덕진동 주민



## 2 덕진동 덕진공원

[덕진동 생태계 환경 개선]

- 1) 연꽃축제를 단오제로 승화
- 2) 덕진공원 연못을 친환경으로 개선



## 3 진북동 건산천·우성아파트·숲정이공원

[건산천 생태하천 조성]-사계절

[우성아파트 후문 환경 개선]-인도설치

[숲정이 공원]-옆 노인정 건립



## 4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두산아파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택시 승강장 조성

[미용 특화거리 조성]

-두산아파트 도로 강림교회

(헤어샵·네일숍·피부샵·젊은카페)





## 주요활동내용

- 이웃사랑 모임
- 덕진경찰서 모래내 직대 생활안전지도
- 전주YMCA 이사
- 금암1동 방위협의회 전총무
- 큰바위봉사 모임(도지사)
- 세계일보 조사위원, 인터넷기자 취재원
- 도지사, 교육감, 전주시장, 도의장, 경찰서장, 교육개발원장 등 다수 표창 있음
- 2010년 뛰는전북(새전북신문) 인명구조 일면에 기재됨 (교육개발원장 표창, 전주고등학교 표창)

## “살려달라는 말에 아무 생각도 안났어요”

2010  
뛰는 전북 당신이 힘입니다

■ 온몸던져 경운기 사고당한 70대 구한 윤선호씨  
40분간 경운기 들고 버텨...어깨 탈골로 3주간 입원



그리다 신인의 집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년 윤씨가 이를 발견해 곧바로 구조 요청에 나섰다. 처음에 윤씨 이름과 재정에 원인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구하려 했지만 끝까지 실패했고 이후 다시 쇠파이프를 이용해 40분간의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하지만 경운기의 중앙은 땅이 바로 이를 이기지 못한 윤씨는 119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자 쇠파이프를 이용해 경운기를 허공에 띄우게 하는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짓누르던 경운기를 밀어 내던졌다. 이후 119가 도착해 할아버지는 구조됐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지만 끝까지 회복이 없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한 생명을 살린 한 시민의 아름다운 선행이 되찾게 되었다. 신행의 주인공은 바로 전주시 북구에서 40년째 거주하고 있는 윤선호씨(49·사직). “아무 생각도 안났어요. 그저 고통에 포획되는 할아버지를 구하려다 보니...” 윤씨는 지난날 같은 오후 11시에 임시군 상무면 오봉리에서 70대 할아버지 윤명호씨(73)가 경운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곳은 간척이 드문곳일 뿐만 아니라 북동쪽 구릉에 사방 들은 열었고 윤 할아버지는 ‘살려달라’는 고함과 함께 누군가의 확실한 도움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인의 집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년 윤씨가 이를 발견해 곧바로 구조 요청에 나섰다. 처음에 윤씨 이름과 재정에 원인을 이용해 할아버지를 구하려 했지만 끝까지 실패했고 이후 다시 쇠파이프를 이용해 40분간의 진땀을 흘려야만 했다. 하지만 경운기의 중앙은 땅이 바로 이를 이기지 못한 윤씨는 119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자 쇠파이프를 이용해 경운기를 허공에 띄우게 하는 방법으로 할아버지를 짓누르던 경운기를 밀어 내던졌다. 이후 119가 도착해 할아버지는 구조됐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지만 끝까지 회복이 없는 이상

## 경력 사항

- 현)전주시 자원봉사자
- 전)시민행동21 정회원
- 전)시민경찰연합회 홍보국장
- 전)와이즈맨 전주지방 백제클럽 초대회장
- 전)3670지구 새전주로타리클럽 사회봉사위원장
- 전)모래내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전)사단법인 지역발전 32기 회장
- 전)덕진경찰서 시민경찰 기수회장
- 전)풍남동자율방범대 부대장
- 전)진북동 방범대 활동



무소속 **시의원** 후보  
전주시야선거부 [진북동 금암동 덕진동]  
**윤선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숲정이3길 23-1, 2층  
HP. 010-3652-5973

\*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제작된 것임  
제작·편집 : 파워광고기획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2길 23